기고

시 몽

공자의 神없는 모랄

공자는 위대한 성인이다. 신(神)이나 말하는 따분한 성인이 아니다. 성인으로서 공자를 논어속에서 만나보면 2500여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계신 것처럼 그분을 대하듯 인간적이면서 다정한 초월적 인간인 것 같다. 물론 그는 때때로 하늘을 말하였으나 신을 인격화시킨 그런 모순을 배척했다. 사실 공자는 초월적이면서도 인간적 인격완성을 추구한 정의의 실현자였다. 오히려 그것이 풍부한 인간성으로 우리를 매혹시킨다. 당치 않는 신을 말한다거나 신의 아들이라 하면서 신을 앞세우고 혹세 무민하는 것을 경계했다. 소련의 작가 일리아 예렌부르크는 '일반적으로 동양인에게 특유한 것은 영혼의 깊이요, 관조이며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공자는 신비로운 도를 말하거나 신의 구제를 말하지 않았다. 공자는 제자 자로에게 '신은 떠받드는 마음'라는 질문 받고 "아직 사람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신을 잘 섬기겠나"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자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공자는 "아직도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니" 하였다. 제자 중 구도심이 강한 자로는 드높은 이상에 심취한 나머지 눈앞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결점이 있었다. 공자는 학문을 종교로부터 해방시켜 현실적이고 생활적 지혜를 깨닫는 학문을 가르쳤다. 제정일치(祭政一致)의 도시국가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와 신을 떠받드는 제사가 분리되지 않았으나 그런 조건하에서도 공자는 백성을 통치하는 정치에 중점을 두고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학(學)에 전념했던 것이다.

따라서 논어는 현실주의적인 생활의 지혜는 그것을 실현시킬 분야가 사회요, 국가임을 자각하고 정치적 실현에 중심을 둔 정치윤리의 확립에 뜻을 더 둔 것 같다. 공자의 현실주의는 구라파 기독교문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화와 전제적 풍토를 지닌 동양적 문화윤리를 완성하여 놓았다. 따라서 그런 사상의 원천인 공자의 인간성 역시 당시 중국사회가 낳은 성인이면서 정치윤리의 개혁자요, 정치개혁을 인간성의 개혁에서 착안한 모랄리스트였다고 할 것이다.

공자에 있어서는 원죄도 신도 없고 다만 인간성이 있을 따름이다. 동양의 종교철학이라든가 사상적 중심은 신을 의인화한 서양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위대한 공자이건만 그를 헐뜯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한번은 공자께서 여행중 길을 잃어 제자에게 농부한테 길을 묻게 했다. 농부가 말하기를 "당신네 선생 공자는 입만 열면 도, 도(道, 道)하면서 천하를 돌아다니고 있음으로 길 같은 건 묻지 않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는 당시 사람들이 공자를 비난하는 말이다.

유비가 공자를 뵙고자 하였으나 공자는 몸이 편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말을 전달한 심부름꾼이 문을 나가자 비파를 타면서 노래하여 그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 유비는 임어당의 상상력을 빌리면 덕을 헤치는 도적에 해당하는 향원(鄕愿)이다. 다시 말하면 잘난 체하는 시골뜨기였다.

논어에 바깥모양은 위엄을 차리면서 마음이 연약한 자를 소인에 비유한다면 남의 집 벽을 뚫고 담을 넘어가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과 같다고 했다. 그런 좀도둑 같은 자와는 만나는 것을 거절하여 마음의 충격을 주자는 것인 듯싶다. 공자는 표리가 부동한 그런 사람을 제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경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행실이 나쁘기로 유명한 위나라 왕후와 한 수레를 타고 시내를 순회하였다. 그 수레를 타 자로의 분노까지 샀으며 시민들이 자기보다 아름답고 젊은 왕후에게 눈이 뺏긴 것을 알고는 "사람은 덕을 숭상하기보다는 미(美)를 숭상하더라" 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옛이나 지금이나 속물스럽기는 마찬가지였나 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性稟)을 말하면서 자각을 요구한 점이 공자의 위대함이요, 동양사상의 위대함이다.

서구사상가 중 예수를 몹시 싫어한 프랑스의 볼테르는 자기집에 공자를 모셔놓고 매일 경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공자는 유익한 도리만의 해석자다. 그는 세상을 현혹시킴이 없고 인심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공자는 성인으로서 도(道)를 설파했다. 예언자로서 설교한 것은 아니다. 그런대도 사람은 그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 자국에서마저도 볼테르는 인간성이나 마음의 자각을 요구한 공자의 무종교성에 매혹되었나 보다.

〈백양사 주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교칼럼

이영헌

설날에 대한 단상(斷想)

지난 2월 14일 일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대명절인 설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주일'(主日)과 겹친 날이었지만,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미사' 대신에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명절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설날이 우리 민족의 얼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설날 전후 고향땅과 부모형제를 찾아 이루어진 '민족 대이동'도, 신정(新正)보다는 구정(舊正)에 훨씬 더 정감이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게다.

설날은 우리 민족의 전통에서 원단(元旦), 정초(正初), 세수(歲首), 연두(年頭) 등으로 표현되고, 특히 경거망동(輕擧妄動)을 삼가고 조심하는 날, 곧 신일(愼日)이라고 말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은 낯설고, 한 해의 운수가 설날에 달려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게다. 그래서 새해를 단정한 몸가짐으로 맞이하며 서로 축복해주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날 '명절미사' 때 천주교 신자들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루카 12, 35-40)을 봉독하여 들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디 주님을 대면(對面)하는 날, 특히 죽음을 맞이하는 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지만, 설날에 듣게 됨으로써 새해 덕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며 무상(無常)을 넘어서 살 줄 아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다짐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사실 설날은 일 년 365일 가운데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루인데, '설'이라는 말('낯설다'에서 파생된 말)로 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고유한 날로 자리한 것뿐이다. 그래서 여느 하루도 어떤 의미를 가질 경우 특별한 날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경(死境)에 이른 사람에게는 여느 하루도 예전에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하루가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언젠가는 죽게마련이다. 다만 죽는 그때를 모를 뿐이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의 연기"일 뿐이라는 사실(야고 4, 14)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인지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순간은 붙잡아 둘 수도, 다시 올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해외유학시절 지치고 힘들었을 적마다 '사람은 살면서 산다!'는 생각과 신념으로 자신을 달래며 키워왔던 그 순간들이 가끔씩 뇌리를 스쳐가곤 하는데, 오늘 이 순간은 왠지 더욱 새롭다.

하루하루가 설날과 같은 그런 날이 될 수는 없는지 마음속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기도 한다.

"사람 마음속의 뜻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린다."(잠언 20, 5)는 솔로몬의 잠언도 새롭게 되새기면서.

〈치평동 성당 주임신부〉

기고

안기석

2015 광주U대회 성공 범시민 참여 있어야

'바르셀로나 효과'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입장식에서 안토니오 레볼로라는 장애인 양궁 선수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성화를 붙인 활을 성화대에 쏘아 올려 점화하는데서 유래하였는데 그 의미는 "기존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창의성" 정도가 되겠다.

지난 1월 26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지난해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5 대회 대회개최지 광주 결정 낭보가 날아온지 8개월만이다.

2015년 개최될 제28회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한국의 강점인 IT와 접목시켜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의 프레올림픽 성격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리는 광주U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U대회 마스터플랜과 경기장 건설, 경기운영시스템 매뉴얼 작성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 할 것이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도 문화시민운동 전개를 통한 시민의식 선진화와 자원봉사, 시민서포터즈 활동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1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하는 심천은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대회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운영 봉사자 2만 명, 도시자원봉사 4만 명, 사회자원봉사 10만 명 등 모두 16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대회를 지원한다고 한다.

세계인들의 주목과 관심 속에 열리게 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한 차원 높은 선진 문화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유치한 행사로서 국제도시간 무한 경쟁시대에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인지 시험의 장이 될 것이다. 단순한 스포츠 제전이 아니라 우리 광주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우리 시에서는 순수 시민운동으로 올해 2월 23일에 15만 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민운동추진협의회의 발대식을 갖는다. 시민운동협의회는 U대회의 성공개최지원은 물론 친절·질서·청결 등 기초질서 지키기도 앞장서게 된다. 우리가 진정 선진사회로 인정받으려면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닌 정신적, 문화적으로 성숙된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친절, 질서, 청결은 선진도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필수적인 소양이다.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을 돌아보면 거리 곳곳에서 무질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나 서비스는 국제도시 수준에 비해 미숙한 점이 있다.

이제 더 이상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한 관 주도의 지도단속은 안 된다. 시민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민의식의 선진화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화가 이를 위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으로 시민이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이런 문화시민운동의 성공을 '광주효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시 자치행정과장〉

30평 이하 식당도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을

얼마 전 식당에 갔는데 김치맛이 이상해서 식당 주인을 불러 왜 이러냐고 묻자 김치를 사다가 쓰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래서 왜 원산지표시도 안 하냐고 따지자 "작은 식당은 원래 그런 거 원산지표시 안 하는 거 모르냐?"고 되물어 황당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인데 그나마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30평) 이상인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 저질 중국산 양념으로 만들거나 중국에서 완전히 만들어진 김치가 들어오는 듯하다. 손바닥만한 김밥집이나 일반 음식점이 전부 다 조그만데 30평 이상만 그런걸 지키라고 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대상 품목을 고춧가루와 마늘 등으로 더 늘리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작은 식당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혹은 저질 중국산 김치가 판치는걸 막을 수 있다.

▲김윤남·광주시 남구 방림1동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금지 규정 만들어야

며칠 전 퇴근길에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자전거 한 대가 천천히 가고 있었다. 자동차 소리를 듣고 알아서 길을 내주기를 바라며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자전거가 계속 길 가운데를 천천히 달렸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차를 자전거 옆으로 빼서 추월하려는 순간 자전거가 갑자기 휘청하면서 내 차 앞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나는 이미 차를 정지한 상태였는데 자전거가 차 본넷트쪽으로 넘어졌다. 그런데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너무나 놀랬다. 자전거 탑승자는 술냄새를 확 풍기면서 날더러 운전 똑바로 하라고 고함을 쳤다.

차도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다가 차량쪽으로 달려들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한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용두동

사설

지방자치 훼손한 광주시의회 조례안 처리

광주시의회가 18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자 경찰 투입을 요청해 강제 해산시키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시의회가 아수라장이 됐다니 한심하고 딱한 노릇이다. 경찰이 해산에 나서는 동안 시의원들은 3층 쪽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가 관련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마치 국회에서의 '타락한' 장면을 답습하고 그대로 보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시의회가 처음으로 경찰 투입까지 요청하면서 처리했던 선거구 조정안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가. 그 저의가 다른데 있다는 것은 광주시민이면 모를 리 없다.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가 4인 선거구 보다는 민주당 출신 배출 가능성이 높은 2인 선거구로 쪼개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우리는 이미 선거구가 분할되면 소수정당과 신진 인사의 의회 진출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정 정당의 싹슬이로 인한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실종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같은 동을 나누어 선거를 치르는 것은 관리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화와 타협도 거부한 채 강행 처리한 것은 치졸한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민선 4기를 거치는 동안 일당독점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폐해를 경험했다. 본연의 임무인 '대의'보다는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되다보니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이번 조례안 강행 처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합장 법정구속, '돈 선거' 근절 계기돼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7일 지난 2008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3명에게 180만원을 준 해남 모 농협 조모 조합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례에 비춰 상당히 엄한 징벌로, 농협 조합장 선거의 불법·타락 상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농협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됐다. 광주·전남지역만 하더라도 지난해 선관위에 고발된 부정선거 사례만 8건에 달한 데다 최근 조합장 2명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조합장 선거에서 '돈=당선'은 거의 일반화하다시피 했다.

조합장 돈 선거의 폐해는 심각하다. 지역 농촌의 경우 조합장 선거를 한번 치르게 되면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패가 갈려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후 고소·고발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장 돈 선거는 지방선거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죽하면 '조합장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풍토를 망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까.

농협 선거가 돈 선거로 타락된 것은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당선 이후 부정·특혜 대출이나 인사 비리 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걸맞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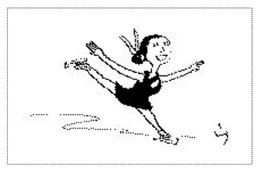
이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 벌금형으로 끝나선 공명 선거를 기대할 수 없다. 돈의 과다에 관계없이 다시는 공직선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해남지원의 사례가 조합장 공명선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김연아

"남녀가 사당패와 색주가들처럼 손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구나." 1894년 겨울 경복궁 향원정에서 시연 된 피겨 스케이팅을 처음으로 본 명성황후의 소감이다. 이 시연회로 우리나라 땅에 피겨 스케이팅이 처음으로 소개된다.

피겨가 일반에 퍼진 것은 1920년대 경성에 '피규어 스케잇 구락부'가 탄생하면서부터다. 여자 회원이 없어 남자들끼리 아이스댄싱을 했다.



국제무대에 첫선을 보인 것은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에 이광영·김혜경·이현주 등 3명이 참가하면서부터다. 경험이 전무했던 만큼 성적은 꼴찌를 맴돌았다. 국제대회 첫 입상은 1991년 삿포로 동계유니버시아드 시니어 싱글에서 정성일이 따낸 은메달이다.

그 5년 후 1996년 여섯 살짜리 '꼬마 김연아'가 엄마 손을 잡고 스케이트장을 찾는다. 그것은 단지 취미삼아 배워보려던 피겨 스케이팅이었다. 그녀가 훗날 '피겨여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지 그 누가 알았을까. 2006 세계 주니어 선수권, 2009 세계선수권 우승을 하더니 지난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는 꿈의 점수인 210점을 돌파했다.

김연아가 오늘날 '피겨여제'가 될 수 있었던 요인에는 타고난 신체조건과 감각, 두둑한 배짱, 어머니의 헌신 등을 꼽는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엄청난 연습량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브라이언 오서 코치도 "연아의 천재성을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연습 과정을 딱 사흘만 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오전 김연아 선수가 출전하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경기 쇼트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프리프로그램이 있는 26일 오후 1시면 메달 색깔이 결정된다. 최선을 다해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국민적 기대감이 너무 커 김연아 선수가 느끼는 중압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차분함 속에 결과보다는 그녀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주는 자세가 참된 응원이 아닐지…

/김일환여론매체부장 kih8@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